

# 국가경제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2조 투입

(5년간)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기업 연구개발에 민관 공동 지원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분야 선정  
기술사업화 자금 3년간 최대 6억

정부가 미래를 이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발굴해 적극 육성한다. 이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성장을 위해 민관 공동으로 5년간 2조 이상을 투입한다.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도 신설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오전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발표 간담회를 열고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초격차 스타트업'이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만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신산업 기업을 말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유망 신산업 분야 중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10대 분야로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인공지능)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첨단 미래산업 스타트업 육성전략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을 선정했다.

중기부는 이를 바탕으로 5년간 1000개사 이상의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한다. 방식은 공개모집형, 민간·부처 추천형, 민간 투자형이다. 선정된 초격차 후보군에는 선정방식에 따라 특화된 지원이 이어진다.

공모형과 추천형은 보유한 기술력을 고도화하고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선정 후 3년 동안 최대 6억원까지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들은 스스로 투자유치 노력을 해야하며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하는 R&D 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민간투자형은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정 후 최대 3년간 15억원의 R&D 자금을 제공한다. 창업사업화와 해외마케팅 비용을 각각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5년간 선정한 초격차 스타트업에 기술사업화와 R&D 자금, 민간의 대응 투자자금을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초격차 분야별로 정부출연연구소와 같이 기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된다. 스타트업의 기술완성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주관기관은 기본적으로 전문인력, 연구시설 등 R&D와 관련된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주관기관 선정 과정에서 스타트업 전담부서나 자체 운용 펀드 등 스타트업 육성에 필요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 우대된다.

주관기관은 기술이전, 공동·위탁연구, 실증과정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를 돕는다. 제품과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본지원 이후 민간 투자시장으로부터 대규모의 투자유치를 받았거나 글로벌 기업과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가 돋보이는 상위 핵심기업은 별도의 후속 사업화 자금을 받는다.

선발규모는 연간 20개사 내외다. 선발된 기업은 글로벌 스케일업을 촉진하

기 위한 사업화자금을 2년동안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100억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를 신설하고 해외자본을 유입할 '글로벌 펀드'를 현재 약 6조3000억원 규모에서 내년 말까지 8조원 수준으로 늘린다.

부처 간 협업과 연계지원도 마련한다. 각 부처는 초격차 후보군을 추천할 때 소관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의 수요를 파악해 핵심지원 수단과 각 부처의 R&D, 인력육성, 인프라 등 기업 성장과 운영에 필수적인 정책들과 연결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스타트업"이라며 "미래 성장 가능성이 큰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 민간과 정부의 역량·수단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외환보유액 27.6억달러 ↓... 석 달째 감소

지난달 말 4140억1000만달러  
환율방어 영향... 감소폭은 둔화  
중국, 3조290억달러 가장 많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전월보다 27억달러 넘게 줄었다.

전월(-196억6000만달러)에 비해 감소폭은 크게 축소됐지만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에 따른 일시적 효과 포함) 등의 영향을 받았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40억1000만달러로 전월 말 대비 27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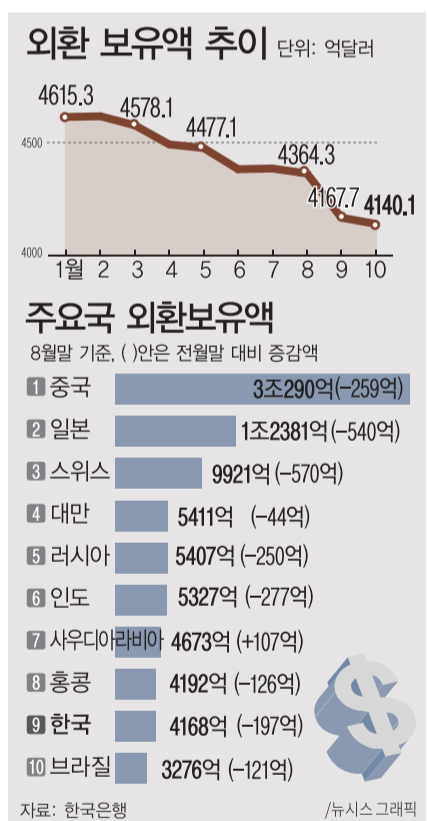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및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달러 환산액은 증가했으나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에 따라서다. 미달러화 지수 기준 10월중 미달러는 약 1.3% 평가절하됐다.

한은은 "10월중에는 9월에 비해 외환시장 풀림현상이 완화됨에 따라 변동성 완화조치 규모가 큰 폭 감소했다"라며 "국민연금과 외환당국간의 외환스왑, 수출기업(조선업체 및 해운업체 등)의 달러화 매도 등이 국내 수급여건 개선에 기여했다"라고 말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623억5000만달러로 87.5%를 차지했고 ▲예치금 282억9000만달러(6.8%) ▲SDR 143억1000만달러(3.5%) ▲금 47억9000만달러(1.2%) ▲IMF포지션 42억6000만달러(1.0%) 등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중국이 3조290억달러로 가장 많으며 ▲일본 1조22381달러 ▲스위스 8921억달러 ▲대만 5411억달러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



## 수입차 시장 질주... 벤츠, 왕좌 탈환

지난해 동기 대비 35.2% 증가  
벤츠 7717대... BMW 6754대 2위

수입차 시장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벤츠가 모처럼 왕좌를 되찾았고, 전기차 인기도 꾸준히 늘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10월 신규 등록대수가 2만5363대였다고 3일 밝혔다.

전달(2만3928대)보다 6%, 전년 동기(1만8764대)보다는 35.2%나 증가한 수치다. 누적으로는 22만5573대로 전년(23만3432대)보다 아직 3.4% 부족하다.

브랜드별로는 메르세데스-벤츠가 모처럼 1위를 되찾았다. 7717대, BMW가 6754대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미니(613대)와 롤스로이스(10대) 등을 합쳐도 벤츠에는 미치지 못했다.

아우디(2637대)와 폭스바겐(1114대), 포르쉐(737대) 등 폭스바겐그룹도 꾸준한 성적을 이어갔고, 쉐보레가 1586대를 판매하며 순위권에 다시 진입했다. 그밖에 렉서스(781대)와 토요타(482대) 및 혼다(273대) 등 일본 브랜드와 지프(767대), 푸조(306대) 등 스탈란티스 그룹 브랜드도 선전했다.

/김재용 기자

트림별 베스트셀링카도 벤츠 E250이 다시 왕좌를 되찾았다. 2092대, BMW 520이 1138대로 그 다음이었다. 모델별 로도 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순이었다.

전기차 약진도 두드러졌다. 3위가 아우디 Q4e-트론 40(957대), 5위가 쉐보레 볼트 EUV(719대), 7위가 폭스바겐 ID.4(585대)였다. 배기량별로는 전기차가 4848대로 19.1%에 달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임한규 부회장은 "10월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반도체 공급난 속에서 일부 브랜드의 물량확보 및 신차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 중소업체, 국세청장에 "세무조사 완화를"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등 현안 건의

중소기업계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21건의 세정 현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비롯해 김병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이 참석했다.

현장건의자로 나선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올해 정부세제개편안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모두 1000억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 담겼는데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은 제외됐다"며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이날 참석자들은 김 청장에게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세 면제 등 7건의 현장건의와 함께 14건의 서면건의를 했다. 김기문 회장은 "중소기업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접점에 있는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인 국세행정 제도개선을 통해 납세자인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친기업적 환경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복합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재도약 지원을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감면, 가업승계에 대한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적극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LS전선, 뉴스룸 '뉴스프레스소' 열고 소통

LS전선이 뉴스룸을 열고 소통 강화에 나선다.

LS전선은 'LS전선 뉴스룸 : 뉴스프레스소(NewsPresso)'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페이지는 언론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레스룸 ▲비즈니스 ▲사람과 문화 ▲지속가능경영 등으로 구성했다.

LS전선은 기업 PR과 제품 소개 등

일반적인 정보 전달 중심보다는 토리텔링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제품 개발 및 수주의 비하인드 스토리, 산업계 동향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임직원 인터뷰와 영상 등을 통해 흥미롭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에 분산돼 있던 각종 정보들을 한 곳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재용 기자 juk@